

교사가 지각한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 경로*

- 잠재성장곡선모형을 적용한 단기종단연구 -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Externalizing Problems Perceived
by Teachers in Preschool Settings :
A Short Term Longitudinal Study with Applied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강지현(Ji Hyeon Kang)¹⁾

오경자(Kyung Ja Oh)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preschoolers and to investigate dimensions of temperament and parental behaviors associated with trajectory groups. Subjects were 180 3- to 5-year-old preschoolers (96 males, 84 females)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They were assessed three times at 5 month intervals over a one year period. Teachers reported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parents reported on children's temperaments.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Analysis with cohort sequential design revealed externalizing behaviors gradually decreased between 3 and 6. At the 6-year-old level externalizing behaviors were associated with high novelty seeking temperament.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importance of longitudinal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Key Words : 외현화 문제행동(externalizing problems), 발달 경로(developmental trajectories), 잠재성장곡선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ing), 동시대 집단 시계열 설계(cohort sequential design).

* 본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것임.

¹⁾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인간행동연구소

²⁾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i Hyeon Kang, Institute of Human Behaviors,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 counsel4u@chol.com

I. 서 론

문제행동 혹은 심리장애의 생성과 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문제행동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대상을 발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이들 행동의 시간에 따른 발달 경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Loeber & Farrington, 1994). 그러나 기존 연구들의 대다수가 횡단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고(예 : Dodge, Pettit, & Bates, 1994; Hinshaw, 1994 등), 몇몇 종단 연구의 경우에도 이런 자료를 적절히 다루는 분석 방법의 제한 때문에 발달 경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예 : Campbell & Ewing, 1990; Shaw, Keenan, Vondra, Delliquadri, & Giovannelli, 1997 등).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오면서 잠재성장곡선모형(Willet & Sayer, 1994)과 위계적 선형모형(Bryk & Raudenbush, 1992) 등 종단 자료를 다루는 분석 방법이 발전함에 따라 연구자들이 발병 시기, 시간에 따른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최근의 종단 연구들은 학령기 이전의 심각한 정서 행동 문제가 이후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의 심리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어(Hofstra, van der Ende, & Verhulst, 2002; Mesman & Koot, 2001; Prior, Smart, Sanson, & Oberklaid, 2001), 종단 자료를 통한 유아기의 심리적 적응을 이해할 필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유아기에 대한 연구는 발달경로에서의 개인차를 반영하여 그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거나, 성인기까지라는 시간적으로 다소 긴 기간을 포함하고,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예측 변인을 다루는 연구 결과물들이 축적된 아동기나 청소년기를 다룬 연구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유아기는 언어, 인지, 사회적 행

동과 운동 능력 등 중요한 변화들이 비교적 단기간에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그 과정에서 적응상의 문제가 나타나기 쉽다. 이러한 문제들의 상당수는 일시적이고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유아기의 문제들이 학령기(예 : Campbell, Pierce, Moore, Marakovitz, & Newby, 1996; Shaw, Winslow, & Flanagan, 1999), 혹은 성인기까지 지속되기도 한다(Moffitt, 1993). 그럴 경우 유아기의 심리적 부적응은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능력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유아기의 문제 행동의 발달 경로를 밝히려는 연구는 품행문제와 반사회적 문제를 보이는 대상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초기에는 남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이렇듯 유아기에서 외현화 문제행동이 중심이 되었던 것은 유아기에 시작된 공격적인 행동문제가 안정적이며, 영아기부터 학령전기는 이후의 적응 부적응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시기이고, 심각한 품행 문제는 치료(개입)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초기의 적응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하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대가가 크기 때문이다(Smith, Calkins, Keane, Anastopoulos, & Shelton, 2004).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를 추적하는 연구는 유아기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유아기에서 시작하여 이후 초기 아동기를 포함하는 연구들로 나뉘볼 수 있다. 유아기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보다 집중적으로 이 시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아동기까지 포함한 연구는 유아기에서 시작된 문제들이 인접한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Owen과 Shaw(2003)는 저소득 가정의 2세, 남아 299명을

대상으로 6세까지 5회에 걸쳐 어머니가 지각한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 경로를 찾고자 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부적 변화율(negative slope)을 나타냈다. 열악한 환경의 2세, 남아 303명을 6세까지 5회 측정하여 어머니가 지각한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를 추적한 Gillom과 Shaw(2004) 연구에서도 유아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부적 변화율을 보였다. National Logitudinal Survey of Youth(NLSY)의 자료 중 4세 유아 523명을 대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를 추적한 Colder, Mott와 Berman(2002)는 이들 유아들이 초기 아동기가 되는 8세까지 총 3회에 걸쳐 어머니의 보고를 통해 문제행동을 측정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남아들에게서는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초기 수준이 유지되는 반면 여아들에게서는 부적인 변화율을 보여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남녀를 따로 분리하여 발달 경로를 산출한 결과에서 성에 따라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 경로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유아기에서 시작하여 아동기를 포함한 또 다른 연구로는 2세 유아 1,190명을 대상으로 3, 4, 7, 9세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한 Miner와 Clarke-Steward(2008)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흥미롭게도 문제행동에 대하여 부모와 교사 모두의 보고를 받았는데, 부모와 교사 보고 모두에서 유아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7세까지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7세 이후에는 문제가 유지되는 형태를 보였다. 다만 부모의 보고에 의한 문제행동 점수가 교사보고에 의한 것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아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는 평가자에 따라 혹은 평가하는 상황에 따라 다를 가능

성이 시사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발달 경로는 각 개인의 발달 경로에 대한 평균치를 제시하는 것인데 특정 시점에서 개인의 문제행동 수준이 다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현화 문제행동이 변화하는 속도에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때 변화에서의 개인차를 예측하는 변인은 환경에서 비롯된 위험요인과 아동의 내재된 취약성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병리, 빈곤, 가족의 구조적 결손 등 환경에서 비롯된 위험요인은 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수효가 증가할수록 부정적 영향이 점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illiams, Anderson, & McGee, 1990). 그런데 최근에는 열악한 환경의 부정적 영향이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이 지적됨에 따라(Cowen, Work, & Wyman, 1997; Luthar, 1991), 환경 요인의 영향을 중재하는 개인의 내재된 취약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 본 연구자는 유아기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들 중 환경적인 위험 요인에서는 그 부정적 영향을 매개하는 주요 기제로 제시되는 부모 양육행동 변인(그중에서도 특히 적대적 양육행동)과 개인 내적인 취약성으로는 유아의 기질의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부정적 정서와 적응성의 부족, 사회적 철회와 높은 반응강도 등으로 구성된 ‘까다로운 기질(difficult temperament)’은 아동의 정서 및 행동 문제의 위험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어 왔으며(예 : Thomas & Chess, 1977), 횡단 연구에서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이 보고되어 왔다(예 : Bates & Bayles, 1988; Sanson, Smart, Prior, & Oberklaid, 1993 등). 유사한 결과가 종단 연구에서도 보고

되었는데 Owen과 Shaw(2003)의 연구에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친 유아의 기질적 특성은 부정적 정서성이었으며, Gillom과 Shaw(2004)의 연구에서도 부정적 정서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 수준과 변화율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Colder 등(2002)은 동일한 기질 요인이라도 성별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종단 자료를 통해 보였는데, 남아들에게서는 높은 수준의 활동성과 낮은 수준의 두려움이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을 상승시킨 반면, 여아들에게서는 기질이 외현화 문제행동의 상승을 예측하지 못했다. Cloninger(1987)에 의해 제안된 4개의 기질 차원 중 특별히 ‘자극추구(novelty seeking)’와 ‘위험회피(harm avoidance)’ 기질은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종단 자료는 아니지만 Rettew, Althoff, Dumenci, Ayer와 Hudziak(2008)는 44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Cloninger의 4개 기질 척도 즉 위험회피, 자극추구,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기질에 대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통해 3가지 기질 유형을 찾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때 자극추구와 위험회피가 모두 높은 기질 유형은 높은 수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모두와 관련되었다. 국내에서는 박진아, 이경숙과 신의진(2008)이 만 4-6세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가 반응적이지 못한 경우에 유아의 자극추구 기질적 취약성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바 있다.

유아기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위험 요인 중에서는 개인의 내적인 취약성을 매개하는 주요 기제로 제시되는 부모 양육행동 변인(Elder, Nguyen, & Caspi, 1985)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및 다른 형태의 외현화 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횡

단 연구결과(예 : Hart, Dewolf, & Burts, 1992; Patterson, DeBaryshe, & Ramsey, 1989), 부정적인 부모양육과 파괴적 혹은 공격적 행동 간의 관계를 연결 짓는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적대적인 부모 행동(예 : 낮은 온정성, 높은 지시성, 높은 신체적/언어적 처벌)은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과 관련을 보이며(예 : Dishion, Duncan, Eddy, Fagot, & Fetrow, 1994; Rose-Krasnor, Rubin, Booth, & Coplan, 1996), 반대로 온정적인 부모행동은 낮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Booth, Rose-Krasnor, McKinnon, & Rubin, 1994; Russell & Russell, 1996)를 예측하게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종단 자료를 활용한 Shaw, Owens, Giovannelli와 Winslow(2001)는 310명의 저소득 가정 유아를 6년 동안 추적한 결과 주 양육자에게서 ‘적대적 부모양육’이 관찰된 유아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하여 횡단자료와 마찬가지로 종단자료에서도 적대적 부모양육 행동이 유아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유아의 성별은 외현화 문제행동의 예측변인으로 꾸준히 언급되어 온 변인 중의 하나이다. 횡단 자료에서는 걸음마기부터 남아들은 여아에 비해 보다 공격적이고 갈등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고되었으며(예 : Dodge, Coie, & Lynam, 2006 등), 2년의 시간차를 두고 어머니의 보고에 의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한 Rubin, Burgess, Dwyer과 Hastings(2003)의 연구에서도 여아에 비해 남아가 2세때 갈등-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였으며 4세때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보고를 활용한 종단 자료로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한 연구에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어서(예 : 강지현, 2009; Miner & Clarke-Steward,

2008 등), 유아기에 외현화 문제행동에 있어서 어머니 보고에 의한 성차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외현화 문제행동을 교사보고를 통해 다룬 횡단연구(예 : Deater-Deckard, Dodge, Bates, & Pettit, 1998; Juliano, Werner, & Cassidy, 2006 등)와 유아기 일부와 아동기에서 외현화 발달경로를 탐색하는 연구 중 문제행동을 측정할 때 교사와 어머니 보고를 모두 활용한 연구(예 : Keiley, Bates, Dodge, & Pettit, 2000; Miner, & Clarke-Stewart, 2008 등)를 종합해보면, 교사 보고에서는 성차가 비교적 일관적으로 드러난다. 즉, 교사들이 지각한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은 여아에 비해 남아들이 더 높다는 것이다. 다만, Keiley 등(2000)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별이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 수준과 변화율 모두에 영향을 준 반면, Miner와 Clarke-Stewart(2008)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별이 측정의 마지막 시기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에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는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성별이 특정 시점에서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 차이를 설명하는지, 그 외에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 결과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구 학계에서의 종단 연구를 통한 유아기 연구진행과는 달리 이와 관련된 국내 종단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반복 측정한 연구가 있으나 이는 초등학생(이귀숙 · 정현희, 2008)과 중학생(정현희, 2005; 이주리, 2008)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고, 2회 측정에 그치고 있어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시간을 다루기에는 제한적이다. 유아기를 다룬 횡단 연구는 유아의 기질변인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의 조합이 유아의 문제행동 수준에 중요함을 시사하거나(예 : 김영희, 1996; 이미애, 1995; 최영희, 2004 등), 유

아의 성에 따라 가족 변인과 행동 문제의 상관관계나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전연진, 2002), 유아의 기질과 부모 양육 행동, 그리고 문제행동간 관계를 파악한 연구 결과(예 : 손소영, 2004; 이찬숙 · 현은자, 2008; 최연희, 2000) 등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문제행동을 1회에 한하여 측정했기 때문에 유아의 문제행동의 안정성이나 변화의 추이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유아기의 문제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한 연구로는 강지현(2009)이 만3세-5세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가 지각한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를 6개월 간격으로 3회 측정하여 이들 문제행동의 초기수준과 변화율을 검증하고, 이 두 성장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유아의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초기 수준과 변화율에서의 개인차가 유의미한 가운데, 평균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해나가는 형태를 나타냈다. 이때 자극추구 기질과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행동이 적대적일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수준은 더 높았으며, 유아의 자극추구 기질이 높을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율이 더 낮았다.

국내에서 진행된 강지현(2009)의 연구를 포함하여 발달경로를 다룬 상당수의 선행 연구에서 유아의 행동에 대한 측정은 주로 어머니에게서 보고 받아왔다. 그런데 어머니의 평가 자료를 다른 성인의 평가 자료와 비교해볼 때 불일치하는 면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Achenbach, McConaughy, & Howell, 1987; Greitens & Sheeber, 2004). 이러한 불일치는 한편으론 측정의 오류나 정보원의 편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다양한 환경과 관계적인 맥락에서 매우 다

른 행동을 하는 아동의 진정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Kerr, Lunkenheimer, & Olson, 2007).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보원들의 자료를 대할 때, 일치하거나 일관되게 보고되는 결과가 있는지, 서로 상충하는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각각을 맥락에 맞게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통해 특정 대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만3세에서 5세에 이르는 유아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교사들이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교사가 보고한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 경로는 어떤 형태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성별과 기질 및 적대적 부모 양육행동 중 교사가 보고한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 경로의 개인차를 예측하는 변인은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김포시와 고양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12곳에 등록된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측정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1차 설문은 연구에 동의한 기관에 재원중인 유아의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2007년 4월 말에 실시되었다. 총 436명의 자료가 수거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설문은 2007년 9월말에서 10월초에 시행되었다. 이때 응답자는 341명

<표 1> 연구 대상의 연령 및 성별 분포

	남	여	전체
3세이상 4세 미만	29	31	60
4세이상 5세 미만	34	28	62
5세이상 6세 미만	33	25	58
전체	96	84	180

으로 회수율은 78.2%였다. 이들 중 1차와 2차 설문 시 보호자의 응답이 없는 유아를 제외한 256명의 담임 교사에게만 3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3차 설문은 2008년 2월말에 실시되었으며 이때 218명의 자료가 회수되었다. 이때의 회수율은 85.2%였다. 세 번에 걸친 설문조사에 모두 응답된 유아의 수는 222명이었다. 측정시 체계적 탈락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문제행동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2차 응답자와 탈락자간 1차 내재화 문제행동 점수 차이($t=.52, ns$)와 1차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 차이($t=.22, ns$)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3차 응답자와 탈락자간 2차 내재화 문제행동 점수 차이($t=-.24, ns$)와, 2차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 차이($t=-.30, ns$)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3차까지 응답한 유아 222명중 유아기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만 3세 이상 만 6세 미만 유아 180명(남 96명, 여 84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연구 대상의 연령과 성별을 <표 1>에 제시하였다.

2. 측정 도구

1) 유아의 적응

교사를 대상으로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정한 TRF 중 1.5-5세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가 평정하도록 제작된 척도를 오경

자와 김영아(2009)가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유아용 K-CBCL은 각 문제행동 항목에 대하여 0점(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부터 2점(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까지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주의집중문제, 공격적인 행동문제 척도 등 24문항이 포함된다. 따라서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는 0~48점 사이에 놓이게 되는데 점수가 높은 것은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교사가 평정한 미국판 유아용 CBCL의 전체 신뢰도는 .97, 하위척도는 .73-.92였고, 국내 표준화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7, 하위척도는 .71-.9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외현화 문제행동의 내적합치도는 .89였다.

2) 유아의 기질

3세-6세 미취학 연령을 대상으로 기질과 성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Goth, Cloninger와 Schmeck (2003)이 개발한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3-6)를 오현숙과 민병배(2007)가 한국판으로 번역하여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한국판 JTCI의 기질 차원은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등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주양육자가 0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8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기질 및 성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종분석에는 문제행동에 지속적인 영향력이 보고되는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변인만을 활용하였다. 국내 표준화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와 재검사 신뢰도 계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4개의 하위 기질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6-.87로 나타났으며 한달 간격으로 실시된 재검사 신뢰도는 .75-.89로 나타났다. 독일판 기질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71-.86이며 두 달 간격

으로 실시된 재검사 신뢰도는 .75-.82로 국내 표준화 신뢰도와 유사하게 양호한 수준이었다.

3) 부모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행동 중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에 중요한 측면으로 밝혀진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Rohner (1986)에 의해 개발된 부모 수용-거부 질문지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를 전수연(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모 수용-거부 질문지는 공격성/적대감(Aggression/Hostility) 15문항, 따뜻함/애정(Warmth/Affection) 20문항, 무시/무관심(Neglect/Indifference) 15문항, 분화되지 않은 거부(Rejection/Undifferentiated)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의 항상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4개의 하위 척도 중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예 : Dishion et al., 1994; Kim, Ge, Brody, Conger, Gibbons, & Simons, 2003 등) 공격성/적대감 척도 1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격성/적대감 척도의 문항내적 합치도는 .88이었다.

3. 자료분석

1) 동시대 집단 시계열 설계(Cohort Sequential Design)

동시대집단 시계열 설계(cohort sequential design)는 변화를 연구하고자 하는 종단연구에서 중대한 오염 변인인 탈락을 막고 비용을 절감하며, 발달적 격차가 많은 시기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결측치를 사용하는 기법이다(Ducan, Ducan, & Hops, 1994). 본 연구의 대

<표 2> 동시대 집단 시계열 설계

	O ₁	O ₂	O ₃	O ₄	O ₅
문제	cohort1의 1차	cohort1의 2차	cohort1의 3차	-	-
행동	-	cohort2의 1차	cohort2의 2차	cohort2의 3차	-
	-	-	cohort3의 1차	cohort3의 2차	cohort3의 3차

(-) 표시는 결측치를 의미함.

상인 만 3세에서 6세미만에 이르는 시기는 발달과 그에 따른 변화가 많은 시기이므로 이들을 하나의 동시대 집단(cohort)으로 묶는 것은 무리가 있어, 세 개의 독립된 동시대 집단(cohort)으로 구분하여 발달 경로를 추적하기로 하였다. 분리된 각 구간이 하나의 발달 궤적으로 수렴되어 통계적 검증이 가능해지도록(Ducan et al., 1994), 첫 번째 동시대집단의 두 번째 측정치가 두 번째 동시대집단의 첫 번째 측정치와 중첩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동시대집단은 1년의 연령 범위를 갖게 된다. 즉 첫 번째 동시대 집단은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연령 범위를, 두 번째 동시대 집단은 만 4세 이상 만 5세 미만의 연령 범위를, 세 번째 동시대 집단은 만 5세 이상 만 6세 미만의 연령 범위를 갖는다. 따라서 두 번째 측정 시기(O₂)에 첫 번째 동시대 집단의 구성원 중 일부는 두 번째 동시대 집단의 구성원과 월령이 중첩되게 된다.

2) 잠재성장곡선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

잠재성장곡선모형분석은 각 개인의 반복 측정된 값으로 개별 회귀선을 그린 후, 이로부터 개인들의 초기치의 평균값과 변화율의 평균값을 얻어서 하나의 초기치와 변화율로 이뤄진 함수를 얻게 된다(Muthén & Muthén, 2000). 본 연구에서는 초기에 측정한 예측변인이 시간차를 두고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 중심화(time centering)를 통해 초기치(intercept)를 마지막 측정 시기로 맞췄다. 반복측정 시 발생한 결측치에 대해서는 각 변인들의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했다는(missing at random : MAR) 가정 하에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FIML은 결측치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 MAR 가정을 완벽히 충족시키지 않는 조건 하에서도 listwise나 pairwise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미시수 추정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Schafer & Graham, 2002). 자료 분석은 M plus 5.0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 경로의 형태

1차와 2차 및 3차 시기에 측정된, 교사가 보고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연령과 성에 따라 구분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또한 동시대집단 시계열 설계를 적용하여 얻은 문제행동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수준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연령의 주효과($F(2,174)=6.13, p<.01$)와 성별의 주효과($F(1,174)=11.67, p<.01$)가 유의미하였다.

<표 3> 교사가 지각한 만 3세-5세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3세			4세			5세		
	남 (N=29)	여 (N=31)	전체 (N=60)	남 (N=34)	여 (N=28)	전체 (N=62)	남 (N=33)	여 (N=25)	전체 (N=58)
1차 외현화 문제행동	10.52 (8.04)	4.74 (5.73)	7.53 (7.47)	9.38 (7.60)	7.75 (8.98)	8.65 (8.23)	5.97 (7.56)	2.28 (3.92)	4.38 (6.48)
2차 외현화 문제행동	7.93 (7.58)	4.26 (4.32)	6.03 (6.34)	9.09 (7.91)	5.79 (6.98)	7.60 (7.63)	8.41 (7.53)	5.57 (7.19)	7.13 (7.46)
3차 외현화 문제행동	6.38 (5.61)	3.03 (4.37)	4.65 (5.24)	6.42 (7.45)	3.48 (6.00)	5.16 (6.95)	5.27 (5.93)	3.08 (5.73)	4.33 (5.90)

이 둘간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연령에 따른 사후검증 결과 만 3세는 만 5세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낮았으며(Tukey's HSD=3.15, $p<.05$), 만 4세 역시 만 5세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더 낮았다(Tukey's HSD=4.27, $p<.01$). 만 3세와 만 4세간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여 남아들에 비해 여아들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동시대집단 시계열 설계를 활용하여 교사가 지각한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형태를 탐색하기 위하여 선형 모형과 2차 함수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함수 모형의 경우 음분산(non-positive definite)이 발생하였다. 2차 함수모형의

잠재성장곡선분석이 공분산 구조모형의 문제를 드러낸 것에 반해, 선형 모형의 잠재성장곡선모형은 자료에 잘 부합되었다. 분석한 모형이 기저 모형과 비교하여 얼마나 자료를 잘 설명해주는지를 알려주는 상대적 적합도 중 CFI, TLI 값을 고려하고(Bentler, 1990; McDonal & Marsh, 1990), 이론 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의 하나인 RMSEA 값을 고려할 때(Browne & Cudeck, 1993) 본 모형의 적합도는 우수한 편으로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는 선형적인 모형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었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intercept)와 변화율(slope)라는 두 개의 성장요인(growth factor)의 평균과 표준편차, 이 둘간의 상관을 <표 6>에 제

<표 4> 동시대 집단 시계열 설계에 따른 문제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O ₁ (N=67)	O ₂ (N=131)	O ₃ (N=197)	O ₄ (N=130)	O ₅ (N=66)
외현화 문제행동	7.53(7.47)	7.36(7.45)	5.58(6.68)	6.18(7.26)	4.33(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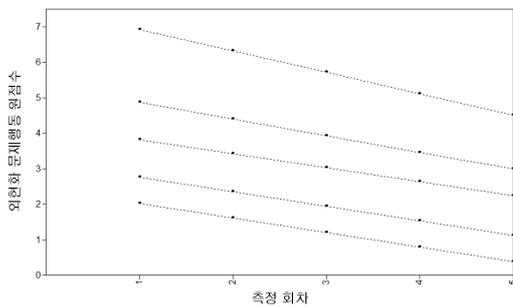
<표 5>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잠재성장곡선모형의 적합도

	χ^2	df	p	CFI	TLI	RMSEA
외현화 문제행동	9.924	7	.19	.986	.986	.048

<표 6>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잠재성장곡선모형 검증 결과

	Means	S.E.	t
초기치	4.764	.563	8.469***
변화율	-.658	.206	-3.185**
	Variance	S.E.	t
초기치	25.446	6.640	3.832***
변화율	.436	1.262	.345
	Coefficient	S.E.	t
초기치와 변화율간 상관	-.969	2.523	-.384

** $p < .01$ *** $p < .001$



<그림 1>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개별 추정치-일부
시하였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 경로 일부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교사가 지각한 외현화 문제행동은 1회 측정마다 평균적으로 .658만큼씩 감소하는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화율의 분산은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화율에 있어서 개인차이가 유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즉 교사들은 유아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동일한 속도로 감소해나간다고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 유아의 성별, 유아의 기질, 부모의 적대적 양육행동이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의 개인차에 미치는 영향

1차 시기에 측정한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적대적 양육행동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연령과 성별에 따라 <표 7>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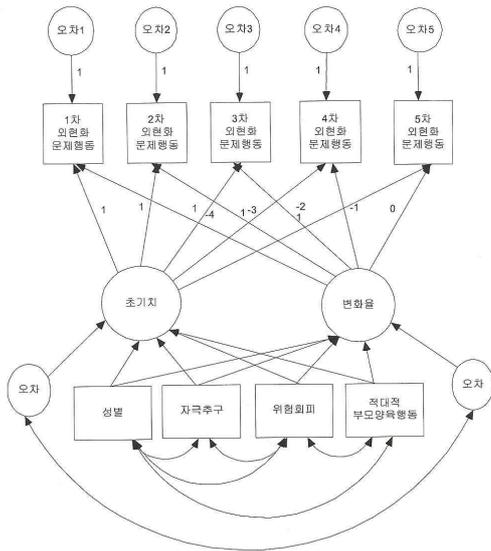
예측변인이 모형에 투입되지 않았던 무조건 모형의 잠재성장분석을 실시한 후에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하여 초기 점수와 변화 속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예측변인을 구하고자 조건 모형의 잠재성장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변인으로는 유아의 성별,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 기질과 부모의 적대적 양육행동을 투입하였다. 예측변인이 투입된 잠재성장곡선모형의 모델 적합도를 <표 8>에, 모형도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절대적 적합도 지수의 하나인 RMSEA 값을

<표 7> 연령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기질과 적대적 부모양육행동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예측변인	3세			4세			5세		
	남 (N=34)	여 (N=33)	전체 (N=67)	남 (N=34)	여 (N=30)	전체 (N=64)	남 (N=37)	여 (N=29)	전체 (N=66)
유아의 자극추구 기질	20.24 (8.54)	14.97 (7.10)	17.64 (8.24)	18.41 (9.46)	15.40 (9.07)	17.00 (9.33)	16.19 (8.37)	12.03 (7.61)	14.36 (8.25)
유아의 위험회피 기질	23.38 (10.72)	24.09 (9.26)	23.73 (9.96)	22.12 (7.94)	22.47 (8.64)	22.28 (8.21)	21.38 (9.00)	21.28 (7.63)	21.33 (8.36)
부모의 적대적 양육행동	33.47 (6.92)	32.15 (5.76)	32.82 (6.36)	32.00 (7.39)	33.63 (7.41)	32.77 (7.39)	31.22 (6.87)	29.79 (5.66)	30.59 (6.36)

<표 8> 예측변인을 투입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잠재성장곡선모형의 적합도

	χ^2	df	p	CFI	TLI	RMSEA
외현화 문제행동	24.500	19	.177	.977	.967	.040



<그림 2> 발달 경로의 개인차를 확인하기 위한 잠재성장곡선모형의 모형도

<표 9> 성장 요인(growth factors)에 대한 예측변인의 설명력

	외현화 문제행동		
	Estimates	S.E.	t
초기치에 대한 설명력			
성별	-1.518	1.118	-1.357
자극추구기질	.202*	.076	2.663
위험회피 기질	-.105	.070	-1.515
부모의 적대적 양육행동	-.070	.090	-.0754
변화율에 대한 설명력			
성별	.407	.422	.964
자극추구기질	-.003	.029	-.103
위험회피 기질	-.017	.026	-.678
부모의 적대적 양육행동	.017	.035	-.474
오차 분산			
초기치	20.663**	6.371	3.243
변화율	.139	1.264	.110

* $p < .05$ ** $p < .01$

고려할 때(Browne & Cudeck, 1993), 조건 모형 역시 합당하다고 할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만 3세에서 5세에 이르는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3회 측정하여 이 시기 문제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고, 나아가 이러한 발달 곡선의 개인차를 유아의 기질과 성별, 부모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3세-6세 유아들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은 전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유아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는 결과는 여러 선행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Cummings, Iannotti와 Zahn-Waxler(1989)나 Rubin과 동료들(2003)은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2세에 정점을 이루다가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강지현(2009)이 동일 연령대의 유아들에 대해 어머니가 보고한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해나간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어머니에 이어 교사의 보고에서도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해나간다고 평가된 것이다. 물론 음분산이라는 공분산 구조모형의 문제로 인해 발달경로에서 선형 모델과 2차함수 모델을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

가 선형적이라는 결과는 본 연구 대상과 매우 흡사한 Owen과 Shaw(2003), Gillom과 Shaw(2004)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둘째, 교사 보고에 의한 6세때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은 개인차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나, 변화율은 개인차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변화율에서 보이는 개인차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개인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해 나간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보고에 의한 발달경로 연구에서 평균적으로는 변화율이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개인마다 변화율이 유의미하게 달랐다는 연구결과(강지현, 2009)와는 다른 것이다. 변화율에 있어서의 개인 차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다른 국내 종단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6세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은 유아의 자극추구 기질이었다. 흥분과 보상을 추구하는 탐색활동과 처벌 및 단조로움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자극추구 기질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예 : Rettew et al., 2008; 임진현, 2005 등). 부모가 보고한 문제행동 점수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강지현(2009)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유아기 문제행동의 발달을 이해하고 개입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유아의 기질 자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 부모가 보고한 문제행동 점수의 결과와 비교할 때 유의미한 예측력을 갖는 유아의 기질의 수가 더 적는데 이는 유아의 기질을 평가한 정보원이 부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사가 보고한 문제행동 점수와 상관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같은 맥락에서 그룹에도 유의미한 예측력을 갖는 유아의 자극추구 기질 변인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6세 때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평균을 예측하는 변인을 확인하는 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미미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모의 양육행동 변인이 낮은 설명력을 갖는 것은 우선 측정 도구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유아들의 부모 양육행동은 임상가의 관찰에 의해 평정된 방법을 활용하거나, 혹은 관찰 자료와 어머니의 자기보고 설문지를 모두 활용하는 방법(예 : Shaw et al., 2001 등)을 채택하고 있어서 어머니의 보고에만 의존한 설문 척도만 사용된 본 연구에서 부모 양육행동이 부정확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보고를 보완할 수 있는 부모 양육행동의 측정법이 병행된 연구 결과물들과 본 연구 결과가 비교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다른 가능성은 Shaw와 동료들(2001)이 지적한 바와 같이 초기 아동기에 있어서 외현화 장애는 부모-자녀 관계를 “포함”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동의 일부 특성이 부모를 자극할 수 있고 부모의 반응이 다시 아동의 증상을 악화시키게 되며 이 경우 부모의 양육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상관이 커져 영향력이 과잉 측정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틀로 외현화 문제행동을 본다면 서로를 자극하는 관계가 덜 개입된 교사에 의해 보다 순수한 문제행동이 측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와 부모에게서 모두 문제행동 점수를 보고받았던 연구결과들(예 : Keiley 등, 2000; Miner & Clarke-Stewart, 2008 등)에서 부모의 문제행동 평균이 교사의 평균에 비해 원점수가 더 높았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덧붙여 국내에서 수행된 유아의 문제행동을 다루는 횡단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던 것은 문제행동에 대한 정보원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

보다 시간차를 두지 않는 동시간대의 영향력을 산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유사하게 예측변인이 동일한 시점의 문제행동 수준에 갖는 설명력을 산출하도록 했을 시 부모의 적대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강지현, 2009). 덧붙여 여러 양육행동 중 본 연구에서는 적대적 양육행동만을 다뤘기 때문에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과소 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섯째, 6세때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의 평균에 대하여 성별은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즉, 1차 측정 시기에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던 것을 함께 고려한다면 3세때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성별에 따라 즉 남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나 6세때는 남아와 여아의 평균이 다르다고 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 연구에서 연구 대상에 따라 성별이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양했기 때문에 본 연구와 대상 연령층이 유사하고 유아의 적응에 대하여 교사 평가를 포함시켰던 Keiley 등(2000)의 연구 결과에서도 첫 측정 시기에만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여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실제로 시간 중심화(time centering)을 달리해서 3세를 초기치로 설정하면 성별의 설명력이 유의미하였다($t=-2.411^*$). 이를 통해 비록 본 연구 결과에서 변화율이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남아와 여아가 초기에 보였던 차이를 계속 유지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남아와 여아에게서 외현화 문제행동이 변화하는 속도가 서로 다르다고 예상해볼 수 있겠는데 정확한 성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녀를 구분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수가 부족하여 이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할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가 제공하는 정보를 종합하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해나간다고 보고된 것과 개인차를 유아의 기질변인이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는 것은 어머니와 교사 보고에서 공통적인 것이다. 그러나 부모에 비해 교사보고에서 개인차를 설명하는 부모양육행동의 예측력이 부족했던 것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변화하는 속도가 어머니는 개인 유아마다 다르다고 보고한 반면 교사는 동일한 속도로 변화해 나간다고 보고한 것은 정보원에 따른 차이점이었다. 부연하면, 상이한 정보원간 보고에 대하여 누구의 정보가 더 정확한가를 논의하기보다, 이러한 차이는 각자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관찰 맥락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한 대상이 다른 맥락에서 각기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실과 가정에서의 아동의 행동 특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되어 전체적인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만 3세에서 6세에 이르는 유아기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유아기의 문제행동은 이후 개인의 심리적 안정 뿐만 아니라 학업적 성취, 사회적 관계의 발달 등 전반적인 적응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유아기와 관련된 종단연구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계의 관심이 저조하였다. 앞으로 유아기의 문제행동을 살펴볼 때 시간을 고려하여 이들의 문제행동이 어떻게 변화해 나아가는지,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같은 종단 연구 자료가 지금껏 축적된 횡단 자료와 통합되어 큰 틀에서 유아기 정신병리의 발달을 이해할 수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5개월 간격으로 3

회 측정하여 그 변화를 살펴본 단기 종단연구였다. 따라서 좀 더 오랜 시간동안 더 많은 횡수의 측정을 통한 본격적 장기종단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동일한 시작 연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연령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동시대 집단 시계열 설계를 활용하였다. 즉 만 3세 유아가 6세가 될 때까지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 3세, 4세, 5세를 1년 동안 측정하여 얻은 자료를 통계적 기법을 통해 통합한 것이므로 본 연구결과와 만 3세 유아들이 만 6세가 될 때까지 5회 측정하여 얻은 결과를 비교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180명이라는 비교적 적은 수의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도 제한점이다. 연구대상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2차 함수 모형, 변화모형을 추정할 때 보다 자유로운 모형(spline model)등을 비교하기 어려웠고, 남녀 유아에 대해 독립적으로 발달경로를 추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할 때 담임 교사의 자기 보고식 질문지만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측정 방법을 통해 다수의 유아들의 적응을 장기적으로 측정하여 이들의 문제행동의 변화를 여러 형태로 비교 검증하고, 발달경로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도로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시사된다.

참 고 문 헌

- 강지현(2009). 유아기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유아의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1996). 기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 19-32.
- 박진아·이경숙·신의진(2008). 정서 및 행동장애 유아의 정신병리 유형에 따른 기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 :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7, 523-545.
- 손소영(2004). 취학 전 아동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따른 기질 특성과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김영아(2008). CBCL 1.5-5 유아 행동평가 척도-부모용 매뉴얼. (주)휴노컨설팅 : 서울.
- 오현숙·민병배(2007). 기질 및 성격 검사-유아용 매뉴얼. 서울 : (주)마음사랑.
- 이귀숙·정현희(2008). 학령초기 아동의 문제행동 변화유형에 관한 단기종단 연구. 상담학연구, 9, 1283-1296.
- 이미애(1995).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부조화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리(2008).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내면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조절과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29, 115-125.
- 이찬숙·현은자(2008). 유아의 기질, 사회적 유능감, 감성지능, 도덕성 및 부모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9, 223-238.
- 임진현(2005). 우울-품행장애성향 청소년의 기질과 자기개념 및 정서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수연(2002). 아동 기질과 부모 양육 형태에 따른 행동 발달의 차이 : 발달적 맥락에 따른 '조화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연진(2002).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연희(2005). 중학교 진학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적응의 변화 유형. 상담학 연구, 6, 573-586.
- 최연희(2000). 학령전 아동의 기질, 부모의 훈육방식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희(2004).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

- 른 아동의 자기-유능감 차이에 관한 연구 -조건 모델에 근거하여-. *아동학회지*, 25, 17-32.
- Achenbach, T. M., McConaughy, S. H., & Howell, C. T. (1987). child/adolescent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 Implications of cross-informant correlations for situational specificity. *Psychological Bulletin*, 101, 213-232.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ABA Preschool Forms & Profiles*. Burlington :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Bates, J., & Bayles, K. (1988). The role of attachment in the development of behavior problems. In J. Belsky & T. Nezworski(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pp.253-299). Hillsdale, NJ : Erlbaum.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d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ooth, C. L., Rose-Krasnor, L., McKinnon, J., & Rubin, K. H. (1994). Predicting social adjustment in middle childhood : The role of preschool attachment security and maternal style. *Social Development*, 3, 189-204.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 Sage.
- Bryk, A. S., & Raudenbush, S. W. (1994). *Hierarchical linear models : Application and data analysis methods*. Thousand Oaks, CA : Sage.
- Campbell, S. B., & Ewing, L. J. (1990). Follow-up of hard-to-manage preschoolers : Adjustment at age 9 and predictors of continuing sympto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1, 871-889.
- Campbell, S. B., Pierce, E. W., Moore, G., Marakovitz, S., & Newby, K. (1996). Boy's externalizing problems at elementary school : Pathways from early behavior problems, maternal control, and family stress. *Developmental and Psychopathology*, 8, 701-720.
- Cloninger, C. (1987). A systematic method for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 A proposal.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573-588.
- Colder, C R., Mott, J. A., & Berman, A. S. (2002). The interactive effects of infant activity level and fear on growth trajectories of early childhood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4, 1-23.
- Cowen, E. L., Work, W. C., & Wyman, P. A. (1997). In S. S. Luthar, J. A. Burack, D. Cicchetti, & J. R. Weisz(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 Perspectives on adjustment, risk, and disorders* (pp.527-547). New York; Cambridge.
- Cummings, E. M., Iannotti, R. J., & Zahn-Waxler, C. (1989). Aggression between peers in early childhood : Individual continuity and developmental change. *Child Development*, 60, 887-895.
- Deater-Deckard, K.,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1998). Multiple risk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 Group and individual differenc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 469-493.
- Dishion, T. J., Duncan, T. E., Eddy, J. M., Fagot, B. I., & Fetrow, R. (1994). The world of parents and peers : coercive exchanges and children's social adaptation. *Social Development*, 3, 255-268.
- Dodge, K. A., Coie, J. D., & Lynam, D. (2006).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pp.719-788). New York : Wiley.
-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1994). Socialization medi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conduct problems. *Child Development*, 65, 649-665.
- Duncan, T., Duncan, S., & Hops, H. (1994). The effects of family and peer encouragement on the devel-

- opment of adolescent alcohol use : A cohort-sequential approach to the analysis of longitudinal data.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5, 588-599.
- Elder, G., Nguyen, T., & Caspi, A. (1985). Linking family hardship to children's lives. *Child Development*, 56, 361-375.
- Gilliom, M., & Shaw, D. S. (2004). Codevelopment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 313-333.
- Goth, K., Cloninger, C. R., & Schmeck, K. (2003). Das Junior Temperament und Charakter Inventar für das Kindergartenalter-JTCI/3-6. Klinik für Psychiatrie und Psychotherapie des Kindes- und Jugendalters der J. W. Goethe-Universität Frankfurt.
- Greitens, M. A., & Sheeber, L. (2004). Child behavior problems and maternal symptoms of depression : A mediational model.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17, 141-150.
- Hart, C. H., Dewolf, D. M., & Burt, D. C. (1992). Linkages among preschoolers' playground behavior, outcome expectations, and parental disciplinary style.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3, 265-283.
- Hinshaw, S. P. (1994). *Attention deficits and hyperactivity in children*. Thousand Oaks, CA : Brooks/Cole.
- Hofstra, M., van der Ende, J., & Verhulst, F. C. (2002). Children and adolescent problems predict DSM-IV disorders in adulthood : A 14-year follow-up of a Dutch epidemiological sampl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1, 182-189.
- Juliano, M., Werner, R. B., & Cassidy, K. W. (2006). Early correlates of preschool aggressive behavior according to type of aggress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 395-410.
- Keiley, M. K., Bates, J. E., Dodge, K. A., & Pettit, G. S. (2000). A cross-domain growth analysis :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during 8 years of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 161-179.
- Kerr, D. C. R., Lunkenheimer, E. S., & Olson, S. L. (2007). Assessment of child problem behaviors by multiple informants : a longitudinal study from preschool to school entr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8, 967-975.
- Kim, I. J., Ge, X., Brody, G. H., Conger, R. D., Gibbons, F. X., & Simons, R. L. (2003). Parenting behaviors and the occurrence and co-occurrence of depressive symptoms and conduct problems among African American childr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 571-583.
- Loeber, R., & Farrington, D. (1994). Problems and solutions in longitudinal and experimental treatment studies of child psychopathology and delinquency.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62, 887-900.
- McDonald, R. P., & Marsh, H. W., (1990). Choosing a multivariate model : noncentrality and goodness of fit. *Psychological Bulletin*, 107, 247-255.
- Mesman, J., & Koot, H. M. (2001). Early preschool predictors of pre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DSM-IV diagnos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 1029-1036.
- Miner, J. L., & Clarke-Stewart, K. A. (2008). Trajectories of externalizing behavior from age 2 to age 9 : Relations with gender, temperament, ethnicity, parenting, and rater. *Developmental Psychology*, 44, 771-786.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 Muthén, L. K., & Muthén, B. O. (2000). Integrating

-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 882-891.
- Owens, E. B., & Shaw, D. S. (2003). Predicting growth curves of externalizing behavior across the preschool yea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 575-590.
- Patterson, G. R., DeBaryshe, B. D.,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329-335.
- Prior, M., Smart, D., Sanson, A., & Oberklaid, F. (2001). Longitudinal predictions of behavioral adjustment in pre-adolescent children.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51, 732-739.
- Rettew, D. C., Althoff, R. R., Dumenci, L., Ayer, L., & Huudziak, J. J. (2008). Latent profiles of temperament and their relations to psychopathology and wellnes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7, 273-281.
- Rohner, R. P. (1986). *The warmth dimension : Foundation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Newbury Park, CA : SAGE.
- Rose-Krasnor, L., Rubin, K. H., Booth, C. L., & Coplan, R. J. (1996). Maternal directiveness and child attachment security as predictors of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 309-325.
- Rubin, K. H., Burgess, K. B., Dwyer, K. M., & Hastings, P. D. (2003). Predicting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s from toddler temperament, conflict, and maternal negativ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9, 164-176.
- Sanson, A., Smart, D., Prior, M., & Oberklaid, F. (1993). Precursors of hyperactivity and aggress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 1207-1216.
- Schafer, J. L., & Graham, J. W. (2002). Missing data : Our view of the state of the art. *Psychological Methods*, 7, 147-177.
- Shaw, D. S., Keenan, K., Vondra, J. I., Delliquadri, E., & Giovannelli, J. (1997). Antecedents of preschool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s : A longitudinal study of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6, 1760-1767.
- Shaw, D. S., Owens, E. B., Giovannelli, J., & Winslow, E. B. (2001). Infant and toddler pathways leading to early externalizing behavio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 36-43.
- Shaw, D. S., Winslow, E. B., & Flanagan, C. (1999). A prospective study of the effects of marital status and family relations on young children's adjustment among African and Caucasi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 742-755.
- Smith, C. L., Calkins, S. D., Keane, S. P., Anastopoulos, A. D., & Shelton, T. L. (2004). Predicting stability and change in toddler behavior problems : contributions of maternal behavior and chil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40, 29-42.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 Brunner/Mazel.
- Willet, J. B., & Sayer, A. G. (1994). Using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to detect correlates and predictors of individual change over time. *Psychological Bulletin*, 116, 363-381.
- Williams, S., Anderson, J., & McGee, R. (1990). Risk factors for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in pre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9, 413-419.

2009년 4월 22일 투고, 2009년 7월 2일 수정
2009년 7월 9일 채택